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창립 14주년 맞아 ‘익수당배’ 성악경기 펼쳐



개회사를 하고 있는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리창수 회장

24일,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여 ‘익수당배’ 성악경기가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공연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리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는 지난 15년간 전국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의 지도 아래 로인들의 풍요로운 로년생활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정신문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여러 시, 현 지회를 통해 회원들이 정치, 시사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독려해왔으며 단오절, 추석 등 명절마다 민속행사를 개최해 민족전통문화 계승에도 힘쓰고 있다.”며 “이번 경기가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서로의 기량을 비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국경절에 전국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창립 16주

년을 기념해 료녕성 심양시에서 열리는 전국문예경연대회 대표 선발전으로 장춘시, 길림시, 통화시, 공주령시와 교하시, 서란시, 영길현, 장백현 등 8개 지회의 150여명 회원이 참가해 19개 종목의 다채롭고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경연에 앞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대합창 〈그날이 오면〉으로 축하공연무대를 선보였다. 이어 여러 지역 협회들에서 준비한 독창, 이중창, 소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차례로 펼쳐졌다. 이번 경연 행사의 심사위원들은 장

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길림시조선족군중예술관 및 길림시, 통화시와 장백현의 유명한 조선족 음악인들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성악부문 1등상은 통화시조선족로인협회의 추천작 〈아리랑 랑랑〉, 무용부문 1등상은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의 추천작 〈진달래 만발하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 수상했다.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리창수 회장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올 한해는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창립 1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해

이기도 하다.”며 “고 리만석 전임 회장을 비롯해 협회 발전에 헌신한 모든 관계자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는 로인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길림익수당의 경제적 후원과 성내 여러 조선족예술관의 협력 및 길림시정대심혈관병원의 의료 지원이 있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축하공연무대—대합창 〈그날이 오면〉

길림시 ‘풍만구 잉어’, 전국 ‘명특우신’ 농산품 목록에 선정

최근, 국가 농업농촌부 농산품품질 안전센터가 2025년도 첫진의 전국 ‘명특우신(名特优新)’ 농산품 목록을 발표할 가운데 길림시 ‘풍만구 잉어’가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수

여받았다. 길림시 ‘풍만구 잉어’는 지역의 독특한 생태환경 덕분에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풍만구내 송화호 등 수역은 물이 깨끗하고 다양한 천연 영양소가

풍부해 어류 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여기서 자라는 잉어는 몸통이 길고 탄탄하며 비늘이 황금빛으로 윤기가 돌고 살이 탄탄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특징이다.

이전에도 길림시의 황송전자 목이버섯, 화전 황소, 영길 입쌀, 서란 입쌀 등 총 9종의 농산품이 전국 ‘명특우신’ 목록에 선정된 바 있다. / 길림일보

길림화학섬유그룹이 역여가는 섬유산업의 ‘신실크로드’

— 제 3 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서 첨단제조 분야 다각적 우위 과시

7월 16일, 제 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가 북경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길림화학섬유그룹(이하 ‘길림화섬그룹’)이 첨단제조 분야에서 혁신적인 섬유 해결 방안을 선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섬유산업의 미래를 열다

길림화섬그룹은 이번 박람회에서 인조견, 아크릴, 탄소섬유, 대나무섬유, ‘화웅’ 신소재 등 다양한 첨단섬유 제품을 전시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친환경, 고기능성 소재의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신실크로드’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길림화섬그룹 전시장은 섬유와 복합 소재의 신기한 세계를 펼쳐보였으며 다양한 전시품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인조견 제품, 고급 섬유 시장 주목

부스에서 눈길을 끈 것은 길림화섬그룹의 인조견 제품이었다. 하얀 실타래(丝筒)는 거울처럼 매끄럽고 안제품은 더욱 다양했다. 금박 공정으로 제작된 의류는 화려했고 고급 직물로 만든 벨벳(丝绒) 원단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했다. 전시 담당자는 “길림화섬그룹 인조견은 천연 실크와 맞먹는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급 직물 시장에서 선호받으며 고도화, 스마트화, 친환경



경화로 발전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조 양모’ 아크릴섬유의 혁신

아크릴섬유는 뛰어난 광택, 보온성, 부드러움으로 ‘인조 양모’라는 별명을 얻었다. 길림화섬그룹은 미국 몬산토 회사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탈리아 몬테하사와 협력해 생산라인을 구축, 대량 생산 기반에서 차별화된 혁신을 추구하며 제품 다양화를 이루고 있다.

신소재 ‘화웅’섬유, 섬유계의 새로운 혁명

박람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화웅’섬유로 면보다 부드럽고 양털보다 따뜻하며 가벼워질보다 가벼운 특성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길림화섬그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신소

재로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색상이 선명하고 열 절연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부드럽고 깃털 같은 질감으로 다양한 섬유와 혼방이 가능해 속옷, 양말, 셔츠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천연 향균 ‘대나무섬유’

대나무섬유는 길림화섬그룹의 특허 제품으로 면보다 부드럽고 천연 항균, UV 차단, 생분해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갖춰 ‘숨쉬는 섬유’로 불린다. 전시장에서는 수건, 양말, 속옷과 같은 일상용품부터 침구, 셔츠, 녀성복, 작업복, 아동복까지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며 전 연령대의 섬유 수요를 충족시켰다.

초경량, 초고강도 ‘탄소섬유’ 제품

탄소섬유 전시구역에서는 길림화섬그룹의 자체 브랜드 ‘희비(希飞)’ 탄소섬유 자전거, 스키, 스노보드, 탄소섬유 소재 가방, 드론 프로펠라, 낚시대 등이 전시됐다. 이들 제품은 가볍고 강도가 높아 항공우주, 스포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북방 특산 건강식품도 인기

길림화섬그룹 계열사 룽왕제약(鹿王制药)은 중국 전통 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삼액 발효 캔디, 룽용 제품, 자작나무 수액 등 동북지역 특색 건강식품을 선보였다. 전시 담당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통 건강식품의 현대적 가치를 알리고 인삼, 사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협력 강화

길림화섬그룹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혁신 성과를 선보이고 75개국의 650여개 기업과 교류하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향후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길림화섬그룹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업계 리더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강성일보

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화전시 양정우 항일밀영 탐방



19일, 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회장 림광)는 ‘홍색혈맥과 항정정신을 계승하자’는 주제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쑸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침, 협회 회장단의 주도로 25명 회원이 목적지인 화전시 홍석림장 호자호밀영(蒿子湖密营)으로 향했다. 이동중에 회원들은 협회 우영식 부회장이 정성껏 준비한 동북항일련군의 영웅 양정우와 관련된 생생한 력사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양정우 장군의 애국 장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호자호밀영에 도착한 회원들은 항일전사들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유적지를 둘러보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일본침략자들과 맞서 싸운 간고한 항전의 력사에 감명하였다. 특히 밀영박물관에 전시된 사진과 유물을 통해 항일렬사들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정신을 생생히 체험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홍색관광을 통해 회원들은 혁명정신의 고귀함을 느끼고 오늘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번 행사는 평화로운 시대에 항정정신을 이어가는 력사적 사명감을 다지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 김숙자



‘다채로운 민족, 의료혜택’ 행동 공식 출범

15일, 길림시 조선족기업가협회와 회족문화예술협회, 몽골족문화진흥회는 길림시 리아드호텔에서 길림시 정대심혈관병원 및 백년홍석류료양원과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다채로운 민족, 의료혜택’ 행동을 공식 출범했다. 이는 길림시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의료, 료양, 건강 관리 및 상담 등 분야의 전용 혜택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의 의료 및 료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 동옥빈 부주임, 송영고 처장과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김숙 회장, 길림시회족문화예술협회 조평 회장, 길림시몽골족문화진흥회 우요무 회장 및 길림시 조선족녀성협회, 조선족로인협회,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아리랑합창단 등 단체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다채로운 민족, 의료혜택’ 행동은 소수민족 군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의료, 건강 및 료양 수요에

주목하여 다방면의 우수한 자원을 통합했다. 민족 단체와 협회는 주민들과 가깝고 문화적 풍속에 익숙한 장점을 활용하여 수요 수집, 홍보 및 의사소통 조정을 담당한다. 정대심혈관병원은 임상 진료, 만성병 관리 등을 포함한 전문 의료 자원을 제공하는데 진료 우대정책, 민족 전용 병실 설치, 특색있는 식단 제공 및 검사 비용 할인, 입원 시 침대 요금 면제 등 구체적인 혜택 정책을 시행한다. 백년홍석류료양원은 민족 특색을 갖춘 양로를 조성하고 전통 문화, 체육 활동을 조직하며 민족속관을 존중하는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력은 여러 민족 동포들을 위한 더욱 완벽한 의료 료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자원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민족간 교류와 화합을 더욱 폭넓게 추진할 전망이다. / 차영국기자



2025 길림시 ‘복무당’ 민족무술 전시 행사 개최

19일, ‘대동산수영천하·풍정웅자복무당’(大东山水迎天下·风静雄姿北武当)을 주제로 한 첫번째 복무당 전민건설 민족무술 전시 행사가 길림시 현천령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길림시무술운동협회, 길림시소수민족무술협회, 길림시만족기업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선영구 문화관광국과 길림시인터넷협회에서 협력했다. 길림시 30여개 무술대표팀과 무술 명인, 애호가 등 1,200여명이 참여해 10개 플랫폼에서 각종 무술을 선보였다. 행사 현장에서는 태극권, 팔괘장, 형의권 등 전통 복무당 무술과 칼, 창 등 무기 연기가 펼쳐졌다. 백발

이 성성한 무술 원로로부터 활력 넘치는 어린 초보자까지, 참가자들은 강유상제(刚柔并济)의 자태로 무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또한 관중들을 위한 체험 코너도 마련되며 체험자들이 직접 무술 동작을 따라해보며 무술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술 교실을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무술 보급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건강길림, 문화길림 건설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길림시 무술 문화의 발전과 전통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송융합매체